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성근 신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의 신비이다. 즉 한 분이신 하느님이 세 위격을 지니셨다는 것이며, 이 삼위는 먼저와 나중이라는 차이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관한 계시진리는 사람의 이해를 넘는 신앙의 신비이다. 그렇다고 이 신비를 추상적이고 사변적으로만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과는 멀리 떨어진 초월자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비가 아니라,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신비로 받아들여야 한다.

### 1. 신앙의 신비

복되신 삼위일체(三位一體) 신비는 곧 하느님 자신에 관한 신비이다. 이 신비는 다른 신앙의 교리를 알아듣게 하는 빛이 되며, 또 많은 계시 진리가 이 신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은 한 분만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영원으로부터 같은 신성(神性)을 소유하시면서도, 구별되는 세 위가 있으심을 믿는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은 우리 믿음의 원천이시오, 유일하신 하느님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삼위일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신비이다. 그것은 '하느님께 감추어져 있어서 신적으로 계시되지 않으면 알려질 수 없었던 신비들' 가운데 하나이다. 계시 진리(啓示眞理) 중에 어떤 것은 우리 이성으로 발견되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와 같은 신비(神祕)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곧 신앙의 빛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느님에 관한 신비들이 신앙으로만 파악된다는 사실이 우리 이성(理性)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 즉 신앙의 신비들은 이성에 상반되지 않으면서 합리적 사고의 원리로 알아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성이 신앙의 비춤을 받아 어느 정도 이해에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하느님의 내밀한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게 마련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명시적으로 믿기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성령으로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자 참 하느님이시며 성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도 믿지 못한다. 그리고 아드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은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생명에 한 몫 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다.

### 2.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계시

구원의 역사 시초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계시가 온전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단계적으로 삼위일체 대한 계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

려 주셨다. 구약성경에서도 이 진리의 예표들이 있지만, 삼위일체의 신비가 온전히 명확하게 계시되지는 않았다. 이 신비가 계시된 것은 신약성경에서이다. 성자와 성령이 같은 하느님이시며 성부와 구별되시는 위격임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느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신앙의 진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고백하는 데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처음 세대(世代)를 거쳐 기도와 반성,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했다.

### 1) 성자를 통하여 알려지신 성부<sup>1)</sup>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이는 세상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sup>2)</sup>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아들 이스라엘”(탈출 4,22)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까닭에 더더욱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 왕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신다.<sup>3)</sup> 하느님께서서는 특히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이시며, 이들은 하느님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다.<sup>4)</sup>

이처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앙의 언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먼저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초월적인 권위를 지니셨으며, 동시에 당신의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점이다. 하느님의 부성은 또한 모성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sup>5)</sup>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을 사랑으로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새로운 의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조주로서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당신 외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영원히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오직 당신 아버지와 맺은 관계에서만 영원히 아들이시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마태 11,27).

이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한처음에 계셨으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이신 말씀”(요한 1,1)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콜로 1,15)이시고,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분”(히브 1,3)이시라고 고백한다.

그 뒤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교회는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신 분”이라고 고백하였다.<sup>6)</sup>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242항 참조 정리.

2) 신명 32,6 : 주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그분은 너희를 내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희를 만들고 세우시지 않았느냐?

말라 2,10 :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3) 2사무 7,14 :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4) 시편 68(67),6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시다.

5) 이사 66,13 :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 2)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신 성부와 성자<sup>7)</sup>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호자’(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창조 때부터<sup>8)</sup> 활동하시는 성령께서는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sup>9)</sup>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그들 안에 계시면서,<sup>10)</sup> 그들을 이끌어 “모든 진리를”(요한 16,13) 깨닫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다.<sup>11)</sup>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자와 성부와 구별되는 하느님의 한 ‘위격’으로 계시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에 의해서, 또 성자께서 성부의 곁으로 돌아가신 뒤에는 직접 성자에 의해서 사도들과 교회에 파견되신다.<sup>12)</sup>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성령께서 파견되신다는 사실은<sup>13)</sup>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계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교회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발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며,<sup>14)</sup> 아울러 성부께서 “모든 신성의 원천이며 근원”<sup>15)</sup> 이심을 고백한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는 분.”<sup>16)</sup>이시다.

바오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 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2코린 13,13)라고 전하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12,4-6)라고 고백한다.

## 2.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업적과 삼위의 사명<sup>17)</sup>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모든 계획은 하느님 세 위격의 공동 작업이다. 삼위

---

6)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께서 성부와 “한 본체”이심을 고백하였다. 곧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제2차 공의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에 포함된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지켜 신영을 완성하였다.

7)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3-246항 참조 정리.

8) 창세 1,2 :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위를 감돌고 있었다.

9)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10) 요한 14,17 :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11) 요한 14,26 :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12) 요한 15,26 :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3) 요한 7,39 :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14)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15) 제6차 톨레도 공의회(638년).

16)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7-260항 참조.

가 오직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셨듯이, 그 활동도 유일하고 동일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피조물의 세 근원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다. 한편 각 위격은 자신의 개별적인 위격의 특성에 따라 공동 활동을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한 분 하느님 성부에게서 만물이 비롯되었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며, 한 분 성령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고백한다. 각 위격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신적 파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곧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당신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를 세상에 파견하시어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성자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파견하시어, 모든 사람을 성화시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완성하시려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 활동이자 동시에 개별 활동인 하느님의 모든 계획은, 삼위 하나하나의 특성과 그 유일한 본성을 깨닫게 해 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이 삼위를 결코 분리하지 않으면서 각 위격과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성부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부께서 이끌어 주시고,<sup>18)</sup>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sup>19)</sup>

하느님의 모든 계획의 궁극 목적은 모든 사람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sup>20)</sup>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를 우리 안에 모시도록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 3.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라고 말씀하셨다. 성부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화(聖化)될 수 있도록 돌보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요한 15,9)하고 당부하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느님 안에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 안의 일치야말로 삼위일체

18) 요한 6,44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19) 로마 8,14 :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20) 요한 17,21-23 :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 신비를 깨닫고 그 안에서 알아가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세에 있는 한, 우리 머리로는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언어가 하느님께 관한 숭고한 신앙의 진리를 표현하는 데는 너무나 미비하다. 그러기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은 선물이며,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1요한 3,2)라는 말씀처럼, 늘 희망 속에 생활해야 한다.

### 교회는 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서로 구별되면서도 완전히 동등하신 삼위이시며, 친밀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고 계신다.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삼위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서로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도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길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이르는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므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이다. 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하시는 역사이다(234항).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삼위는 신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이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며, 성자께서는 성부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다. 곧 본성으로 한 하느님이시다(253항).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로 구별된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홀로는 아니시다. 세 위격은 서로 실제로 구별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성자이신 분은 성부가 아니시며, 성부이신 분은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이신 분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다. 세 위격은 그 근원이 가진 관계들으로써 서로 구별된다. 성부께서는 낳으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발하시는 분이시다(254항).

성부는 온전히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성령 안에 계시며, 성자는 온전히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성령 안에 계시며, 성령은 온전히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성자 안에 계신다(255항).